

## 미래를 기다리는 자들

### - 샤자(夏笳)와 김초엽의 SF에 나타난 비동시적 시간성

권혜진

(고려대학교 강사)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샤자의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과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중심으로 트랜스-동아시아 여성 SF에서 기다림이 어떻게 미래의 불평등한 분배를 드러내는 시간 형식으로 작동하는가에 주목한다. 여기서 기다림은 서로 다른 속도와 이동성에 배치된 존재들이 동일한 미래에 동시적으로 도달할 수 없게 되는 비동시적 시간의 구조를 의미한다. 샤자의 작품에서 기다림은 시간 리듬이 다른 존재들 사이의 관계적 비대칭으로 나타나며, 김초엽의 작품에서 기다림은 우주적 거리와 이동 인프라의 재편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배제로서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두 텍스트를 비교함으로써 동아시아 여성 SF가 미래를 기술적 진보의 약속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존재들에게는 끝내 도래하지 않는 복수의 시간으로 서사화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SF 연구에서 미래를 예측이나 혁신의 범주로 읽는 관습을 넘어, 기다림과 남겨짐의 시간 정치학을 중심으로 여성 SF의 초국적 공명을 재개념화하고자 한다.

주제어 : 트랜스-동아시아 여성 SF, 기다림의 정치학, 비동시성, 불균등한 미래성, 관계적 시간성, 샤자, 김초엽

## 1. 서론: 도래하지 않는 미래와 기다림의 문제

SF는 흔히 미래를 상상하는 장르로 간주된다. 하지만 SF가 호출하는 미래는 언제나 균질하게 열려 있는 시간도, 모든 존재에게 동일한 속도로 도래하는 약속의 시간도 아니다. 기술은 세계를 가속화하고 이동 수단은 공간의 한계를 확장하며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는 새로운 감각적·물질적 조건 속에서 재편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모든 존재에게 같은 방식으로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미래에 진입하지만 누군가는 그 미래의 도래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는 이미 출발한 미래의 바깥에 남겨진다. 그리고 이때 기다림은 정서적 상태나 서사적 지연의 차원을 넘어 미래가 누구에게 어떤 속도로 어떤 조건 아래 도래하는지를 드러내는 시간 형식이 된다.<sup>1)</sup>

본 논문은 샤자(夏笳)의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你無法抵達的時間)」과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중심으로 트랜스-동아시아 여성 SF에서 기다림이 미래의 불평등한 분배를 가시화하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작품은 모두 SF적 상상력을 통해 시간의 불균등성을 서사화하지만 그 구체적 양상은 서로 다르다. 샤자의 작품에서 기다림은 서로 다른 시간 리듬에 놓인 존재들 사이의 관계적 비대칭으로 나타난다. 이때 사랑하는 자에게 도달하려는 욕망은 공간적 접근의 문제를 넘어 서로 다른 속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과연 같은 시간 안에서 만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전환된다. 반면 김초엽의 작품에서 기다림은 우주적 거리, 교통 인프라의 중단, 이동 가능성의 차등 분배를 통해 보다 거시적인 이동 체제의 문제로 확장된다. 이 가운데 김초엽의 작품 속 기다리는 자는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인물에 그

---

1) 기다림을 사회적·정치적 시간 경험으로 이해하는 논의로는 가산 하지(Ghassan Hage 2009)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하지는 기다림을 정지된 무능력의 상태로 한정하지 않고 그것을 이동 가능성과 고착 상태, 통치성의 문제와 결부된 사회적 경험으로 분석한다.

치지 않고 미래로 향하는 이동망에서 배제된 존재로 형상화된다.

샤자의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의 원제는 「你無法抵達的時間」이다. 국내에서는 이 작품이 “남들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의 삶을 살고 있는 남자”와 “남들보다 몇 배나 느린 여자”의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이 작품이 사랑의 성취와 실패를 감정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서로 다른 시간 리듬의 충돌과 접속 불가능성의 문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sup>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2017년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佳作 수상작으로 2019년 출간된 동명의 소설집에 수록되었다. 이 작품집은 최근 영문판 If We Cannot Go at the Speed of Light를 통해 세계 SF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두 작품은 한국어권과 중국어권이라는 개별 문학장의 경계를 넘어 번역과 수용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들이 동아시아 SF를 세계 SF 연구의 맥락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편 기존 SF 연구에서 미래는 주로 과학기술의 진보,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상상력, 포스트휴먼적 변형, 대체역사와 시간여행의 서사 구조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SF가 현실의 시간 질서를 낫설게 만들고 다른 가능 세계를 사유하게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sup>3)</sup> 하지만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상상되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미래가 누구에게 도달하고 누구에게 도달하지 못하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이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그 미래에 누가 접근할 수 있으며 누가 접근하지 못한 채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남겨지는가”에 있다. 이 문제의식을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비동시적 시간성”

2) 샤자의 작품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은 이소정 번역으로 2023년 아작에서 출간되었다. 다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작품 인용문은 2017년 출간된 샤자의 중국어 원서 『你無法抵達的時間』(天津: 天津人民出版社)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3) SF의 현실 인식의 변형과 미래적 상상력의 장르로 이해하는 논의는 다르코 수빈(Darko Suvin 1979)의 ‘인지적 낫설게 하기’ 논의 개념을 참조할 수 있다.

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둔다. 비동시성은 동일한 현재 안에 서로 다른 시간들이 공존하는 상태를 가리킨다.<sup>4)</sup> 하지만 본 논문에서 말하는 비동시성은 동일한 세계 안에 놓인 존재들이 같은 미래에 동시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시간 구조를 의미한다. 어떤 존재는 가속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존재는 느린 시간 속에서 뒤따르며 또 어떤 존재는 이미 작동을 멈춘 이동 체제 앞에서 계속 기다린다. 이때 기다림은 비동시적 시간을 가장 구체적으로 감각하도록 만드는 서사적 형식이 된다. 다시 말해 기다리는 자는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기다림은 수동성이나 결핍의 기호로 환원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미래의 정치성을 드러내는 형식으로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기다림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능동적 행위가 유예된 상태, 혹은 사건이 도래하기 전의 공백으로 간주되기 쉽다. 하지만 샤자와 김초엽의 작품에서 기다림은 미래가 누구에게는 가능성으로 누구에게는 지연으로 또 누구에게는 상실로 경험되는지를 잘 드러낸다. 샤자의 작품이 시간 리듬의 비대칭을 통해 ‘관계적 시간성’을 사유한다면 김초엽의 작품은 이동성의 불평등을 통해 ‘불균등한 미래성’을 사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될 “트랜스-동아시아 여성 SF”라는 틀은 국가 문학적 경계를 넘어 동아시아 여성 작가들의 SF가 미래를 감각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론적 범주로서 제시될 수 있다. 여기서 “트랜스”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조건 속에서 공유되면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시간 경험, 특히 발전주의, 기술주의, 이동성, 젠더화된 관계의 문제를 횡단적으로 읽기 위한 관점을 의미한다.<sup>5)</sup>

---

4) “비동시성”은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1991)가 그의 저서 *Heritage of Our Times*에서 전개한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이 개념은 동일한 역사적 현재 안에서도 서로 다른 시간성과 발전 단계가 공존하며 특정 주체들이 동일한 현재를 살면서도 서로 다른 역사적 시간에 놓일 수 있음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5) 페미니스트 SF 비평은 SF를 과학기술적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만 보지 않고 젠더화된 주체, 몸, 사회적 관계, 재생산, 권력 구조를 재사유하는 장르적 실천으로

본 논문의 논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기다림을 비동시적 시간의 정치적 형식으로 재정의하고 ‘비동시성’, ‘불균등한 미래성’, ‘관계적 시간성’의 개념을 통해 트랜스-동아시아 여성 SF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는 샤자의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을 중심으로 시간 리듬의 비대칭, 관계와 지연, 미도래한 미래의 형상화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통해 우주적 거리와 이동성, 기다림과 구조적 배제 그리고 남겨진 자의 시간을 살펴본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두 작품의 비교를 토대로 트랜스-동아시아 여성 SF가 미래를 불균등하게 경험되는 복수의 시간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는 SF 속 미래를 “앞으로 도래할 시간”에서 “불균등하게 도래하거나 끝내 도래하지 않는 시간”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독해 방법은 동아시아 여성 SF를 지역적·젠더적 하위 범주에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SF 연구 안에서 시간성, 이동성, 미래성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는 이론적 장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SF 연구가 미래를 예측, 기술 혁신, 장르적 상상력의 차원에서 이해해 온 관습을 넘어설 때, 기다림은 미래의 불평등한 분배를 감각하게 하는 중요한 비평적 개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샤자와 김초엽의 작품은 “미래를 상상하는 SF”를 넘어 “미래에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들의 시간”을 사유하도록 하는 트랜스-동아시아 여성 SF의 중요한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다.

---

이해한다. 베로니카 홀링거(Veronica Hollinger)는 페미니스트 SF가 기존 SF의 남성중심적 상상력과 젠더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성차와 주체성의 규범을 재구성해 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은 본 논문이 샤자와 김초엽의 작품을 “트랜스-동아시아 여성 SF”로 읽고 미래의 불균등한 분배와 젠더화된 관계성을 함께 분석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다. Veronica Hollinger(2003), “Feminist Theory and Science Fiction,”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Science Fiction*, ed. Edward James and Farah Mendlesoh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25-136.

## II. 기다림의 정치학: 비동시성과 관계적 시간성의 이론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핵심 개념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 블로흐의 ‘비동시성’은 동일한 현재 안에 서로 다른 역사적 시간이 공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Bloch 1991:97-150). 본 논문은 이 개념을 발전 단계의 차이나 역사적 지체를 설명하는 데 한정하지 않고, 동일한 세계 안에 놓인 존재들이 같은 미래에 동시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시간 구조로 확장해 사용한다.

흔히 기다림은 사건이 도래하기 전의 공백, 혹은 행위가 잠시 중단된 상태로 이해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가산하지는 기다림을 정지된 무능력의 상태가 아니라 이동 가능성, 정체, 통치성의 문제와 결부된 사회적 경험으로 분석한다(Hage 2009:97-106). 특히 그가 제시하는 “고착상태(stuckedness)”의 개념은 특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움직임의 가능성을 제한당한 자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다림은 이동의 제한이나 지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향해 의식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sup>6)</sup>

본 논문은 이 관점을 확장하여 기다림을 미래 접근의 조건이 차등적으로 배분될 때 발생하는 시간 형식으로 이해한다. 기다리는 자는 아직 오지 않은 사건을 향해 머무는 존재이지만 그 머뭇은 언제나 자발적 선택의 결과만은 아니다. 어떤 기다림은 제도, 기술, 이동성, 관계의 불균등한 배치 속에서 강제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다림은 세계가 시간을 배분하는 방식과 연결되며 미래로 향하는 경로가 누구에게 열리고 누구에게 차단되는지를 드러내는 감각적 형식이 된다. 샤샤의 경우 이 차등성은 관계 내부의 시간 리듬에서, 김초엽의 경우 이동 인프라의 재편에서

---

6) 블로흐(1995:221)에서는 “아직 의식되지 않은 것”이 “앞으로 향해 다가가는 의식의 방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점에서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기다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불균등하게 도래하는 미래를 감각하게 하는 시간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발생한다.

본 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기다림’을 세 가지 층위에서 이론화한다. 첫째, ‘비동시성’의 관점에서 기다림은 동일한 현재 안에 서로 다른 시간들이 공존할 때 발생하는 감각이다. 둘째, ‘관계적 시간성’의 관점에서 기다림은 타자의 시간에 응답하고자 하지만 완전히 동기화할 수 없는 관계의 조건을 드러낸다. 셋째, 트랜스-동아시아 여성 SF의 관점에서 기다림은 발전, 기술, 이동성 중심의 미래 서사에서 배제된 존재들의 시간을 드러내는 비평적 형식이다.

## 1. 비동시성과 미래 접근의 불균등성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비동시성’은 동일한 현재 안에 서로 다른 시간들이 공존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에른스트 블로흐는 비동시성의 문제를 통해 하나의 역사적 현재 안에서도 모든 주체가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Bloch 1991:97-150). 이 개념은 모든 존재가 동일한 선형적 진보의 시간 위에 놓여 있다는 근대적 시간관을 흔든다. 즉, 어떤 존재는 가속된 미래의 시간 속에 놓이고 어떤 존재는 과거처럼 간주되는 시간 속에 머물며 또 어떤 주체는 현재 안에서도 도래하지 않는 미래를 기다린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비동시성은 이와 같은 발전 단계의 ‘차이’나 역사적 지체를 설명하는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동일한 세계 안에 놓인 존재들이 같은 미래에 동시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시간 구조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특정한 미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존재들과, 그 미래의 도래를 기다리거나 그 바깥에 남겨지는 존재들 사이의 시간적 불균등성이다.

이러한 점에서 SF는 비동시성을 가시화하는 데 매우 적합한 장르이다. 다크코 수빈(Darko Suvin)은 SF를 “인지적 낯설게 하기”의 문학으로 규정하며 SF가 경험적 현실과 다른 가능 세계를 통해 현실 인식을 비판적으로 변형한다고 보았다(Suvin 1979:3-15). SF는 익숙한 현실을

낮설게 만드는 동시에 현실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시간 질서와 권력 관계를 다른 세계의 형식을 통해 다시 보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SF 속 미래는 현실의 불균등한 조건을 비판적으로 확대하고 변형함으로써 현재의 시간 정치학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사유의 장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샤자의 작품은 비동시성을 친밀한 관계 내부의 시간 리듬으로 구체화하는 반면, 김초엽의 작품은 이를 우주적 이동 체제와 인프라의 문제로 확장한다. 두 작품은 각각 서로 다른 층위에서 미래가 모두에게 동일한 속도와 방식으로 도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사화하며, 미래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의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묻는다.

## 2. 관계적 시간성: 함께 있음의 불가능성과 기다림의 윤리

‘관계적 시간성’은 시간이 개별 주체의 내부에서 고립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변형된다는 관점이다.<sup>7)</sup> 사랑, 돌봄, 기억과 상실은 모두 시간의 감각을 바꾼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미래의 한 사건을 기다리는 일이면서 동시에 타자의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려는 행위이다. 하지만 타자의 시간은 완전히 소유하거나 동기화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관계적 시간성은 언제나 불가피한 어긋남과 지연을 포함한다.

샤자의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은 이러한 관계적 시간성을 사랑하는 두 존재 사이의 시간 리듬 차이로 구체화한다. 두 인물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동일한 속도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며, 바로 그 차이 속에서 사랑은 기다림의 형식을 띤다. 이때 기다림은 상대가 언젠가 도착하

---

7) 홀링거(2003:125-136)의 논의는 페미니스트 SF가 젠더화된 주체, 몸, 사회적 관계와 권력 구조를 재사유하는 장르적 장으로 기능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은 본 논문이 관계적 시간성을 여성 SF의 핵심 감각으로 읽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리라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도착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하려는 태도로서 나타난다.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서도 기다림은 구체적인 관계의 회복과 연결된다. 안나가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같은 시간 안에 놓이고자 하는 바람이지만 이동 체제는 그 바람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나의 기다림은 가족에 대한 기억과 약속을 현재 안에 붙들어두는 행위이자 동시에 이동 체제가 절단한 관계의 시간을 지속하려는 태도라 할 수 있다.

관계적 시간성의 관점에서 두 작품은 미래를 개인 주체의 진보나 확장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미래는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며 누군가와 함께 도달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언제나 불안정하고 취약한 성격을 지닌다. 샤자의 작품에서 이러한 관계적 시간성은 사랑 하는 존재들 사이의 속도 차이로 구체화되고, 김초엽의 작품에서는 가족, 이동, 우주적 거리, 인프라의 단절 속에서 드러난다. 이처럼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관계를 시간의 문제로 사유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에서 “트랜스-동아시아 여성 SF”는 중국 SF와 한국 SF가 각기 다른 문화학 속에서 공유하거나 변주하는 시간 경험과 미래 감각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론적 범주로서 설정된다. 이때 샤자의 작품은 관계 내부의 시간 리듬을 통해, 또 김초엽의 작품은 이동 체제의 불평등을 통해 미래가 특정한 존재들에게 지연과 상실로 경험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에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두 작품 속 기다림이 각각 관계적 비동시성과 구조적 배제의 시간으로 형상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III. 관계의 속도와 미도래의 시간:

#### 샤자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

샤자의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은 사랑의 서사를 시간 리듬의 비대칭 위에 배치한다. 이 작품에서 두 인물의 관계를 가로지르는 핵심 조건은 속도의 차이에 있다. 한 인물은 남들보다 빠른 시간 속에서 살아 가고 다른 인물은 남들보다 느린 시간 속에 놓인다. 작품은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시간 리듬을 지닌 존재들이 과연 같은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는가, 사랑은 타자의 시간에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전통적인 사랑 서사에서 두 인물의 결합을 가로막는 요인은 계급, 가족, 사회 제도, 죽음, 물리적 거리 등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샤자의 작품에서 사랑의 장애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 발생하기보다 두 인물의 존재 방식 자체에 내재한다. 서로를 향한 욕망이 강해질수록 두 존재의 시간이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에서 기다림은 비동시적 존재들이 관계를 맺을 때 발생하는 시간 형식으로 제시된다.

나는 여전히 둔하고 느렸다. 무엇을 하든 남들보다 두 배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걷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또 책을 읽고 숙제를 하는 것도 모두 느릿느릿했다. 삶 자체가 느릿느릿 흘러가는 듯했다.  
(夏笳 2017:11)

작품에서 시간의 차이는 두 인물의 신체, 감각, 기억, 관계 가능성을 구성하는 실제적 조건으로 제시된다. 빠른 시간 속에 놓인 인물은 세계를 압축된 속도로 경험하고, 느린 시간 속에 놓인 인물은 다른 밀도와 지속 속에서 세계를 인식한다. 이들은 동일한 세계 안에 존재하지만 같은 현재를 살아가지는 않는다. 이처럼 작품은 동일한 공간의 공유가 곧

동일한 시간의 공유를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설정은 Bloch(1991:97-150)가 말한 비동시성의 문제를 친밀한 관계의 층위로 이동시킨다. 하지만 샤자의 작품에서 비동시성은 사랑하는 두 존재 사이의 감각적·신체적 시간 차이로 구체화된다. 한 사람에게 짧게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다른 사람에게는 긴 기다림이 되고, 한 사람에게 도달 가능한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미 지나가버렸거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너는 늘 그렇게 달아나 버리고, 나는 너를 따라잡지 못해. 내가 어떻게 해야 네가 나를 알아봐 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용기 내어 네게 말을 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네가 나를 기억해낼까?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마다 이런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서 뒤엉켜 싸웠다. 그 싸움은 가슴이 쥐어 짜이듯 나를 아프게 했고 마음속은 텅 빈 황무지처럼 황폐해졌다. 나처럼 이렇게 느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의 발걸음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네가 멈춰 서서, 뒤돌아 나를 제대로 한 번 바라봐 줄까? (夏笳 2017:18)

상기 인용문은 두 인물의 관계가 동시성의 형식으로는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느린 시간 속에 놓인 인물에게 사랑은 상대의 발걸음을 따라잡으려는 시도로 나타나지만 그 시도는 언제나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기다림은 서로 다른 시간 리듬이 관계 내부에서 충돌할 때 나타나는 감각적 형식이며, 사랑은 시간의 차이를 감수하면서도 상대를 향하는 과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SF에서 속도는 미래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 더 빠른 이동, 더 빠른 계산, 더 빠른 신체적 적응은 흔히 기술적 진보의 이미지와 결합한다. 하지만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에서 속도의 증가는 관계의 성취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 빠름은 우월한 시간이 아니며, 느림 역시 결핍된 시간이 아니다. 작품이 문제 삼는 것은 서로 다른 속도가 같은 관계 안에 놓일 때 발생하는 어긋남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속도

는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인 동시에 관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요소로 기능한다 할 수 있다.

나는 천천히 내 몸을 느꼈다. 지금은 혈류와 심장 박동은 물론, 생체전기가 세포막을 통과하는 속도까지 모두 동시에 네 배나 빨라져 있었다. 손발은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웠고, 마치 몸속의 근육 하나하나, 신경 한 줄 한 줄이 산산이 흩어져 어지럽게 바닥에 한 무더기로 쏟아져 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온 정신을 집중해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주워 담았다. (夏笳 2017:37-38)

이 장면은 관계적 시간성이 신체의 속도 조정으로 구체화되는 순간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존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시간만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녀는 상대의 시간에 자신을 열어둠으로써 자신의 속도를 조정하고, 상대가 도착할 가능성을 위해 현재를 재구성한다. 하지만 타자의 시간은 그녀에게 완전히 소유되거나 동기화될 수 없다. 이처럼 상대의 시간에 맞추려는 시도는 언제나 불완전하며, 바로 이 불완전성이 관계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그 관계를 윤리적 경험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샤자의 작품 속 ‘지연’은 사랑을 방해하는 외적 조건이라기보다는 사랑이 성립하는 방식에 가깝다. 두 인물은 서로를 향하지만 결코 서로에게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다. 이 작품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도달할 수 없음”은 상대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 다시 말해 타자의 시간은 언제나 나의 시간과 어긋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이다.

안녕. 이제 정말 안녕. 서로 의지하며 버티느니, 차라리 드넓은 강호 속에서 서로를 잇는 편이 낫겠지. 너의 세계는 내가 애초에 머무를 수 없는 세계였어. 너를 따라잡으려 이토록 오래 달려왔으니 이제는 멈춰서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겠어. 그리고 나는 나의 세계로 돌아가려 해. 네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시간 속으로. (夏笳 著, 2017:61)

여기서 “도달”은 관계적 시간의 동사로서 작동한다. 도달한다는 것은 상대가 살아가는 시간에 들어가는 일이지만 작품은 그러한 행위가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이 타자의 고통이나 사랑을 완전히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타자의 시간 또한 온전히 대신 살아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사랑은 불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를 향해 나아가려는 태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다림은 가산 하지가 논의한 “고착 상태(stuckedness)”와 일정부문에서 점점 이루어면서도 그 작동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가 기다림을 이동 가능성과 정체성의 사회적 문제 속에서 분석했다면 (Hage 2009:97-106), 샤자의 작품은 기다림을 사랑하는 존재의 시간에 접근할 수 없는 관계적 조건의 문제로 전환한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사랑하는 존재의 시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릴 뿐이다. 따라서 샤자의 작품에서 기다림은 개인의 내면적 결핍이나 감정적 수동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하는 존재와 같은 시간을 공유할 수 없게 만드는 관계적 비동시성의 구조를 드러내는 형식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에서 미래는 두 사람이 함께 도달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 지점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시간 리듬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긋나는 관계적 시간으로 형상화된다. 한 사람이 특정한 도달했을 때 다른 사람은 아직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한 사람이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의 시간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 샤자의 작품은 이러한 SF적 장치를 통해 미래를 사랑, 지연, 상실의 시간으로 재구성한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기다림은 타자의 시간에 응답하려는 태도이자 미래의 불균등한 분배를 친밀한 관계의 차원에서 사유하도록 하는 핵심적 서사 형식이라 할 수 있다.

#### IV. 이동 불가능한 미래와 남겨진 자들:

#####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우주적 이동이 가능해진 미래를 배경으로 삼지만, 작품의 초점은 이동의 가능성 자체보다 그 가능성으로부터 배제된 존재의 시간에 놓여 있다. 우주선, 항로, 정거장, 워홀 통로는 일반적인 SF에서 미래의 확장과 진보를 상징하는 장치로 기능하기 쉽다. 하지만 김초엽은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기술적 미래가 누구에게 열리고, 누구에게 닫히는가를 묻는다. 안나는 가족이 있는 슬렌포니아로 가고자 하지만 그 이동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우주적 이동 기술의 부재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이동 체계가 더 이상 그를 위한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 점에서 김초엽의 작품은 샤자의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과 다른 층위에서 도달 불가능성의 문제를 전개한다. 샤자의 인물들이 서로 다른 시간 리듬으로 인해 상대의 시간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한다면, 김초엽의 안나는 이동 인프라의 재편 속에서 가족이 있는 세계로 가는 경로 자체를 상실한다. 샤자에게 도달 불가능성이 관계 내부의 비동시성으로 나타난다면, 김초엽의 작품에서 그것은 우주적 이동 체제 안에서 구조화된 배제의 문제로 제시되는 것이다.

“슬렌포니아 행성계로 가는 우주선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이곳은 오래전에 폐쇄되었어요. 슬렌포니아 근처의 워홀 통로가 있었다면 진작에 발견되었겠죠.” (김초엽 2019:177)

“기술의 전환은 생각보다도 급작스럽게 일어나지.” (김초엽 2019:167) 라는 말이 말해주듯이 상기 인용문은 안나가 의존하던 이동 체계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무효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작품 속 세계에서 우주는 절대적으로 닫힌 공간이 아니다. 인류는 이미 지구를 넘어 다른 행성으로 이동할 수 있고 우주적 이동은 기술적 가능성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바로 그 가능성이 모든 존재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안나가 슬렌포니아에 갈 수 없는 이유도 그 거리를 연결하던 항로와 정거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 속 우주적 거리는 기술적·제도적 선택의 결과로 생산된 거리이다. 일반적으로 SF에서 이동 기술은 인간 한계의 극복과 더 먼 세계로의 확장을 상징한다. 하지만 김초엽의 작품에서 우주선과 항로, 정거장은 미래 접근 가능성을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체계로서 제시된다. 기술의 전환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기존 항로에 의존하던 이들의 삶과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슬렌포니아행 항로가 경제성의 논리에 따라 폐쇄되면서 안나는 가족이 있는 세계로 향하는 유일한 경로를 상실한다. 이때 안나의 기다림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개인적 상실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향하는 경로를 잃은 자가 경험하는 정치적 시간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안나의 상황은 가산 하지가 말한 “고착 상태”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하지는 기다림을 이동 가능성의 조건과 결부된 사회적 경험으로 분석한다(Hage 2009:97-106). 안나 역시 가족이 있는 세계로 가고자 하지만 재편된 이동 체계는 그녀에게 더 이상 유효한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 결과 안나에게 남겨진 것은 이미 닫혀버린 미래 앞에서 지속되는 기다림 뿐이다. 이때 기다림은 이동 가능성의 차등적 배분 속에서 특정한 존재가 미래로부터 배제되는 방식을 드러내는 시간 형식으로 기능한다.

“[...] 그들이 떠난 이후로 100년이 넘게 흘렀다면 어째서 나는 아직도 동결과 각성을 반복할 수 있는지. 왜 매번 죽지 않고 다시 깨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얼마나 많이 세상이 변했는지.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다시 만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

지. 그럼에도 잠들어 있는 동안은 왜 누구도 나를 찾지 않고, 왜 나는 여전히 떠날 수 없는지 [...] 그녀는 절대로 슬렌포니아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안나의 개인 우주선은 워프 버블조차 만들 수 없는 구식 서틀에 불과했다. 그리고 슬렌포니아 행성계는,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수만 년은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김초엽 2019:180-183)

이 장면에서 주목할 점은 안나의 시간이 단순히 멈춰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녀는 동결과 각성을 반복하며 변화한 세계의 시간을 계속 통과하지만 자신이 향해야 할 슬렌포니아로는 끝내 이동하지 못한다. 따라서 안나의 기다림은 세계의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도 자신의 관계적 시간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비동시적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작품은 이 반복되는 각성과 실패를 통해 미래가 누군가에게는 진행의 시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같은 상실을 반복하는 시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작품 속 구조적 배제는 노골적인 폭력의 형태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동 체계의 재편 속에서 일어난다. 항로의 폐쇄와 정거장의 기능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기술적·행정적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결정은 특정한 존재의 삶을 미래의 흐름에서 이탈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새로운 항로가 열릴 때 오래된 항로는 폐쇄될 수 있고 더 빠른 이동 체계가 구축될 때 그 체계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남겨진다. 김초엽의 작품은 바로 이 지점에서 미래가 효율성과 진보의 이름으로 특정한 관계와 시간을 삭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언젠가는 슬렌포니아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기다리는 것이지. 언젠가는 이곳에서 우주선이 출항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언젠가는 슬렌포니아 근처의 워홀 통로가 열리지 않을까……” (김초엽 2019:177)

안나에게 슬렌포니아는 가족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할 장소이자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이름이다. 따라서 안나의 기다림은 기술적 미래가 폐기한 관계의 시간을 현재 안에 붙들어두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작품의 제목에도 압축되어 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조건은 표면적으로 흡사 기술적 한계에 대한 질문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품 안에서 이 문장은 관계와 미래의 문제로 확장된다.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는 것은 더 빠른 이동 기술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뜻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시 시간에 도달할 수 없고 미래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며 이동 체계가 허락하지 않는 관계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심지어, 아직 빛의 속도에도 도달하지 못했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이 우주를 정복하기라도 한 것 마냥 군단 말일세. 우주가 우리에게 허락해준 공간은 고작해야 웬홀 통로로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분인데도 말이야.” (김초엽 2019:181)

상기 인용문은 우주 개척과 기술 진보에 대한 낙관적 상상력을 상대화한다. 인류는 우주를 확장 가능한 공간으로 상상하지만 실제로 그 이동은 특정한 통로와 체계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같은 우주”에 있다는 사실이 곧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이동할 수 없는 자에게 우주는 열려 있는 공간이 아닌 도달 불가능성을 확인하게 하는 거대한 거리로 경험되고 있다.

“이 정류장이 사라진다니 아쉽군. 벌써 한 시대가 저물었어.” (김초엽 2019:181)

작품에서 정류장은 특정한 시대의 시간성을 담지한 장소로 제시된다. 따라서 정류장의 폐쇄는 그 공간에 의존해 온 이동 방식과 관계의 가능성이 함께 저물어가는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안나는 더 이상 미래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시대의 잔여 시간 속에 머물러 있지만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다린다. 그녀의 시간은 세계의 공식적 시간표와 어긋나며 그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낡은 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작품은 그 어긋난 시간 속에서 미래의 폭력성을 감지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김초엽의 작품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주적 이동이라는 전통적 SF 소재를 정복과 탐험의 서사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작품의 서사의 중심에는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젊고 영웅적인 주체가 아닌 오랫동안 기다려온 노년의 여성이 놓여 있다. 미래는 흔히 젊음, 속도, 혁신, 생산성의 이미지와 결합하지만 이 작품에서 미래의 의미를 가장 절실하게 묻는 인물은 이동하지 못한 채 100년이 넘는 시간을 통과해 온 안나가 서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배치를 통해 미래의 중심을 이동하는 자에게서 남겨진 자에게로 옮겨 놓는다.

“예전에는 헤어진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 적어도 그때는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 같은 행성 위에서, 같은 대기를 공유했던 말일세. 하지만 지금은 심지어 같은 우주조차 아니야. 내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내게 수십 년 동안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네. 그래도 당신들은 같은 우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 사실을 위안 삼으라고. 하지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조차 없다면 같은 우주라는 개념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아무리 우주를 개척하고 인류의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그곳에 매번 그렇게 남겨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김초엽 2019:181)

이 장면은 작품의 윤리적 핵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안나에게 있어 문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는 개인적 비극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녀는 우주 개척과 인류의 확장이 반복될수록 그 뒤편에 남겨지는 존재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이처럼 안나는 기술적 미래가 어떤 배제를 통해 성립하는지를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존재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의 기다림은 상실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기술적 미래의 한계를 드러내는 비판적 형식으로 기능한다. 이 점에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미래를 진보와 확장의 약속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남겨진 자의 기억과 관계 속에서 다시 사유하도록 만드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 V. 결론: 트랜스-동아시아 여성 SF와 도래하지 않는 미래들

SF가 미래를 상상하는 장르라면 그 미래는 누구에게 도래하는가. 이 질문은 SF의 세계관을 묻는 것이 아니다. 바로 미래라는 시간 형식이 어떤 존재들을 포함하고 배제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샤자의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과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모두 기술적 미래를 배경으로 삼지만 그 미래를 진보의 약속이나 확장의 서사로만 제시하지 않는다. 특히 두 작품에서 미래는 모든 존재에게 동일한 속도와 조건으로 열려 있지 않으며 바로 그 불균등성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발생한다. 샤자의 작품에서 이 불균등성은 관계 내부의 시간 리듬 차이로 나타난다. 여기서 빠름은 우월한 시간이 아니며 느림 또한 결핍된 시간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문제는 서로 다른 속도들이 하나의 관계 안에서 만날 때 발생하는 어긋남에 있다. 사랑하는 두 존재는 서로를 향하지만 그들이 살아내는 시간의 리듬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그 결과 사랑은 완전한 동시성의 사건으로 성취되지 않은 채, 기다림과 지연, 접속의 실패와 지속의 의지 속에서 형상화된다.

반면 김초엽의 작품에서 불균등한 미래성은 우주적 이동 체제와 인프라의 문제로 확장된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세계에서 우주적 이동은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지만 그 가능성은 모두에게 동일

하게 열려 있지 않다. 항로가 폐쇄되고 이동 체계가 재편되는 순간, 안나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경로를 상실한다. 그렇기에 안나의 기다림은 기술적 미래가 자신의 보편성을 주장하기 위해 삭제한 관계와 시간의 잔여를 붙들어두는 정치적 형식으로서 제시된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을 함께 읽을 때 기다림은 수동성의 기호를 넘어 미래의 불평등한 분배를 감각하게 하는 비평적 형식이 된다. 기다리는 자는 이미 출발한 미래가 누구를 태우지 않았는지, 어떤 관계를 남겨 두고 떠났는지, 또 어떤 시간을 낚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폐기했는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다림은 미래의 실패를 증언하는 시간 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다른 방식으로 상상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간이다.<sup>8)</sup>

바로 이 지점에서 “트랜스-동아시아 여성 SF”라는 분석틀의 의의가 드러난다. 이 분석 틀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조건 속에서 반복되어 온 발전주의, 기술주의, 이동성의 욕망이 여성 SF 안에서 어떻게 재배치되는지를 읽기 위한 방법론적 시각을 제공한다. 샤자와 김초엽은 기술적 미래를 다루지만 그 미래를 정복과 확장, 속도와 효율의 언어로만 서사화하지 않는다. 이들은 빠르게 이동하는 영웅적 주체 대신 그 속도에 온전히 동참할 수 없는 존재들의 감각을 서사의 중심에 배치한다. 그 결과 미래는 선형적 시간이 아닌 서로 다른 속도와 위치에서 불균등하게 경험되는 복수의 시간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해석은 세계 SF 연구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기존의 SF 연구에서 미래는 오랫동안 예측, 기술 혁신, 인지적 낯설게 하기, 포스트휴먼적 변형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샤자와 김초엽의 작품은 미래가 얼마나 낯설고 진보적인가를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8) 블로흐는 희망을 공상이나 낙관적 기대와 구별하면서 “기대감이 창조적이라면 그것은 객관적 가능성과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한다(블로흐 1995:230).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기다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불균등하게 분배된 미래의 가능성을 감각하는 시간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미래가 누구에게 접근 가능한가, 누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가, 그리고 그 속도에서 배제된 존재들의 시간이 어떤 윤리적·정치적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점에서 두 작품은 동아시아 여성 SF가 미래성 자체를 다시 개념화하는 비평적 힘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본 논문이 제안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또 다른 감각이다. 미래는 누군가에게는 이미 도착한 현실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열리지 않은 가능성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끝내 도달할 수 없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사유한다는 것은 더 빠르게 나아가는 방법을 묻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속도에 오르지 못한 자들, 기다림 속에 남겨진 자들, 도달하지 못한 시간 앞에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시간을 함께 사유하는 일이기도 하다. 샤자와 김초엽의 SF는 바로 이 지점에서 미래를 다시 쓴다. 따라서 미래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자들의 기다림 속에서도 계속 질문되어야 한다.

## ■ 참고문헌

- 구연정(2024), 「서구의 기술담론을 재맥락화하는 한국SF의 문학적 실험: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중심으로」, 『스토리앤이미지텔링』 28,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13-37.
- 김애령(2014), 「사이보그와 그 자매들: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수사 전략」, 『한국여성철학』 21, 한국여성철학회, 67-94.
- 김윤정(2024), 「동아시아 여성 SF 문학에 나타난 ‘몸’의 정치성 연구: 2000년대 한·중·일 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64, 이화어문학회, 87-114.
- 김초엽(2019),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서울: 허블.
- 세릴 빈트 지, 전행선 옮김(2019), 『에스에프 에스프리: SF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들』, 서울: arte.
- 에른스트 블로흐(1995), 『희망의 원리』, 서울: 솔출판사.
- Bloch, Ernst(1991), *Heritage of Our Times*, trans. Neville and Stephen Plaice, Polity Press.
- Hage, Ghassan(2009), “Waiting Out the Crisis: On Stuckedness and Governmentality”, *Waiting*, ed. Ghassan Hage, Melbourne University Press, 97-106.
- Hollinger, Veronica(2003), “Feminist Theory and Science Fiction,” *The Cambridge Companion to Science Fiction*, ed. Edward James and Farah Mendlesoh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5-136.
- Li, Hua(2021), *Chinese Science Fiction during the Post-Mao Cultural Thaw*,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Song, Mingwei(2018), “Introduction: Does Science Fiction Dream of a Chinese New Wave?,” *The Reincarnated Giant: An Anthology of Twenty-First-Century Chinese Science Fiction*, eds. Mingwei

Song and Theodore Hutners, Columbia University Press.

Suvin, Darko(1979), *Metamorphoses of Science Fiction: On the Poetics and History of a Literary Genre*, Yale University Press.

夏笳(2017), 『你無法抵達的時間』,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ABSTRACT

## Those Who Wait for the Future: Asynchronous Temporality in the SF of Xia Jia and Kim Choyeop

Kwon, Hyejin  
Korea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waiting reveals the unequal distribution of futures in trans-East Asian women's SF, focusing on Xia Jia's "The Time You Cannot Reach" and Kim Choyeop's "If We Cannot Go at the Speed of Light." It redefines waiting not as emotional passivity or narrative delay, but as a form of asynchronous temporality in which beings with different mobilities and paces cannot arrive at the same future together. In Xia's story, waiting appears through relational asymmetry between beings inhabiting divergent temporal rhythms. In Kim's story, it emerges through cosmic distance, broken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unequal access to futurity. Drawing on Hage, Bloch, Suvin, and feminist SF criticism, this paper argues that these works do not imagine the future as technological progress, but as a set of delayed, inaccessible, and unevenly distributed temporal possibilities.

Keywords: trans-East Asian women's SF, politics of waiting, asynchronous temporality, uneven futurity, relational temporality, Xia Jia, Kim Choyeop

■ 논문투고일 : 2026. 05. 10

■ 심사완료일 : 2026. 06. 05

■ 게재확정일 : 2026. 06. 05